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대화 속 설득과 변론

김 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한국수사학회 부회장

- I. 들어가는 말
- II. ‘다수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은가?
- III. 진실과 참된 지식은 설득력이 있는가?
- IV. 설득과 관련된 세 가지 수사학적 쟁점
- V. 설득을 위한 소크라테스의 원칙
- VI. 나가는 말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대화 속 설득과 변론



1. 들어가는 말

기원전 399년 유월의 어느 날, 이른 새벽녘의 아테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갇힌 감옥에 찾아갔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을 무시한다는 불경죄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 중이었다. 크리톤은 친구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무고한 친구에 대한 부당한 고발이었고 잘못된 소송이었으며 어리석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크리톤은 친구를 억울하게 그냥 죽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플라톤은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나는 장면을 『크리톤』에서 그려주었다.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집행이 약 30일 가량 유예되었는데, 그 동안 크리톤은 몇 차례 그를 찾아와 탈옥하여 다른 도시로 가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번번이 거절했다. 이제 곧 사형집행이 될 것이며, 지금 소크라테스가 탈옥하지 않는다면 2-3일 안에 꼼짝없이 죽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크리톤은 또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은 것이다.

크리톤은 탈옥하자고 간청하고 소크라테스는 탈옥할 수 없다고 버틴다. 둘 사이의 논쟁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작품의 첫 부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해도 탈옥하는 것은 아테네의 사법 제도와 법률, 나아가 아테네 도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사법제도와 잘못된 법률을 계속 존속하게 만들고, 마침내 아테네 도시 공동체를 병들고 망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법률과 잘못된 집행에 대한 불복종은 도시의 개혁을 촉진하고 도시 공동체와 시민들을 구하는 길이 아닌가? 크리톤이 탈옥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갈 법하다.

이 글은 크리톤이 제안하는 ‘탈옥의 정당성’, 즉 ‘잘못된 판결에 대한 불복종의 정당성’이라는 쟁점과 그에 관한 두 사람의 주장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보다는 두 사람의 논쟁 아래 깔려 있는 인식론적인 전제를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수사학적 검토를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두 사람의 쟁점인 ‘정의로움’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다수의 의견에 근거한 유동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정의로운 선택과 언행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정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II. ‘다수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은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자네 같은 친구를 잃는 것은 내게는 큰 불운이네. 나는 자네를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 싶어. 그런데 만약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죽는다면,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가 돈을 아까워하다가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고 오해할 것이 틀림없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Dokein)’은 가장 부끄러운 ‘평판(Doxa)’이라네.”

작품이 시작되면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간청한 내용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을 나무라듯이 “자네는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네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라고 대꾸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이 한 말 가운데 ‘평판’과 ‘보인다’는 말을 꼬집어서 비판했는데, 두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스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다. ‘평판’은 ‘독사(Doxa)’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보인다’는 뜻의 동사인 ‘도케인(Dokein)’에서 나온 것이다. ‘독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Dokein) 것을 바탕으로 생기는 의견과 평판’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크리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보다는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인다(Dokein)’”라고 한다면, 이것은 “크리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평판(Doxa)’을 받는다”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듯, ‘독사(Doxa)’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고 ‘평판’이며, 그에 따라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견’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의견’은 큰 위력을 발휘한다.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에서 보듯, 크리톤은 정말로 소크라테스를 아낀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면서 그가 소크라테스의 좋은 친구라고 평가한다면, 다수의 평판은 옳다. 그 옳은 평판 때문에 크리톤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판’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 생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크리톤을 잘못 보고 그가 친구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평판’은 실제와 틀린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평판을 갖게 된다면, 크리톤은 억울하게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크리톤이 그것을 걱정하자, 소크라테스는 “누가 자네를 어떻게 보든, 무엇이라고 그러든지, 어떤 의견과 평판이 세간에 횡행하든지, 실제로 자네만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다. 자네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뜻으로 반박하였다. “가장 공정하면서도 관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Epieikestatos)’들은 우리가 한 일을 실제로 있었던 대로 생각할 거야.”(44c)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평판을 내릴까봐 걱정하는 크리톤과 평판보다는 실제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다수의 평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두 사람의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며, 옳은 것일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공감하는가?

크리톤은 다수의 평판을 신경 쓰지 말라는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말은 멋지지만 ‘멋 부리다 얼어 죽는다’고,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다수의 평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두 사람이 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실제와 다른 평판을 내린다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의견을 가지게 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크리톤은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중이다.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불경스러운 사람이 아니며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Dokei)’. 그리고 ‘공정관대한 사람(Epieikēs)’들도 크리톤처럼 소크라테스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불경스럽고 불순한 사람으로 ‘보인다(Dokei)’면 큰 문제다. 실제로 다수의 잘못된 ‘평판(Doxa)’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관으로 선임된 다수의 청중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지 않았던가. 지금 목숨을 잃을 판인데 ‘나의 실제 모습’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크리톤은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경스럽고 풍기문란의 주범으로 ‘보이지(Dokei)’ 않았다면, 재판정에서 다수의 ‘의견(Doxa)’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는 사형을 언도받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실제로 불경스럽고 풍기문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수의 평판이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는 지금처럼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느냐’는 것, 다수의 평판이 어떠한가는 것은 무시하기 힘든 중요한 문제다. 내가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몇몇 사람이 나의 진면목을 알아준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견과 평판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다수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일이 그렇게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III. 진실과 참된 지식은 설득력이 있는가?

지금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그려나가는 ‘작가’ 플라톤은 ‘실재(ta onta=the beings)’와 ‘의견(doxa=opinion, reputation)’, ‘실제로 그런 것(einai=be)’과 ‘그렇게 보이는 것(dokein=seem)’을 구분했고, 이 구별은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형이상학에

서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이데아(Idea)’라는 개념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플라톤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Phainomena)’들은 진짜가 아니며, 진짜는 우리 몸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이데아’로 있다. ‘이데아’는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존재의 유일한 ‘참모습’이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삼각형’의 참모습이 하나의 이데아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느끼는 수많은 ‘삼각 김밥’에 구현된 삼각형들은 삼각형의 이데아를 흉내 낸 모방품에 불과하다. 삼각형의 이데아가 진짜 있는 영원한 ‘실재’라면, 삼각 김밥에 드러난 삼각형은 ‘진짜의 왜곡’이며,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찰나의 것’으로 생성소멸의 지배를 받는다. 참모습의 허깨비, 실재의 메아리와 같고, 진짜가 아니라 허구며 가짜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 드러나는 ‘현상(Phainomena)’은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의견(Doxa)’과 ‘평판’을 구성한다. (‘파이노메나’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의 동사 ‘파이네스타이’에서 나왔다. 이 동사는 ‘보인다(Dokein)’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상’과 ‘의견’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과 평판은 ‘진실(Alētheia)’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 아니라, 단지 보이는 ‘현상’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이 진상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 않듯이, 현상을 반영한 ‘의견’은 참모습과 엇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참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감각의 간섭에서 최대한 벗어나 깨끗한 영혼으로 오로지 이성에 따라 직관하고 추론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진리에 대한 ‘참된 앎’, 참모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에피스테메(Epistēmē)’라고 불렀다. 그에 반해, 진짜가 아닌 가짜, 가짜지만 진짜와 비슷한 현상이 나에게 ‘보이는(Dokein)’대로 내가 갖게 되는 의견, 견해, 평판이 ‘독사(Doxa)’다. 따라서 의견(Doxa)은 지식(Epistēmē)과 닮았고, 실재의 참모습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인간의 행동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언도를 받았던 경우나,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지 못하고 그냥 죽게 두었을 때에 크리톤이 비

난을 받게 될 경우가 그렇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불경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킨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고’, 그런 ‘평판’ 때문에 죽을 판이다. 한편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구하기 위해 결코 돈을 아낄 사람이 아니며 처벌이 두려워 탈옥을 돕지 않을 만큼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고 죽는다면, 크리톤은 친구에게 무심하고 인색하며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실제와 평판이 정반대일 경우에 생기는 치명적인 봉변이며 재앙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다수의 의견과 평판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만을 추구하겠다는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는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크리톤은 그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인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입장 차이를 수사학적인 맥락 안에서 다시 보여준다. 연설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연설가가 사태와 주제에 관한 진실을 알고, 그 앞에 충실한 생각을 펼쳐내면, 훌륭하고 아름다운 연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연설이 못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파이드로스는 의문을 제기한다. “소크라테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소. 연설가가 되려는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게 될 ‘대중들에게 정의롭게 보이는 것’, 즉 ‘정말로 좋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라고.”(259e-260a)

대중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진실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연설가가 진실을 대중들에게 말하면, 진실을 몰랐던 대중들이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 연설가에게 동의해 주리라고 믿는 것이다. 반면 파이드로스는 진실의 설득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진실을 말해도 대중들이 몰라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연설가는 대중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대중들에게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이 연설가의 말에 수긍하고 설득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파이드로스의 주장은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입장이 진실과 다를 경우에, 연설가는 설득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진실처럼 보이는 것, 그렇지만 진실이 아닌 것, 거짓을 말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이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고르기아스는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을, 평의회장에서는 평의회 위원들을, 민회에서는 참석한 시민들을, 그리고 정치 집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모든 집회에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수사학(Rhētorikē)’이라고 정의한다(452e). 이 능력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학에 능한 사람과 의사가 ‘둘 중에 누가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로 선발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민회나 다른 어떤 집회에서 말로 경쟁을 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 선발될 정도다.’(456b) 의사는 실제로는 의술을 잘 알고 있지만 수사학을 몰라 말을 잘 못해서 청중들에게 믿을 만한 의사로 보이지 않는 반면, 수사학에 능통한 자는 실제로는 의술을 잘 알지 못하는 돌팔이이면서도 말솜씨를 발휘하여 청중들에게는 진짜 의사보다도 의술을 더 잘 아는 의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사학은, 설령 사실 자체를 몰라도 설득의 계책을 찾아내어 무지한 대중들 앞에서 진짜 아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만의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진실과 지식이 없는 수사학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대중들의 상식과 욕망과 입맛에 맞게 말을 하는 일종의 ‘아침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수사학이 정말로 진실에 눈을 감고 설득을 위해 거짓말조차도 활용한다면, 수사학은 개인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IV. 설득과 관련된 세 가지 수사학적 쟁점

그러나 의학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참 거짓이 명료하게 성립하기 어려운 분야,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고 다른 쪽이 완전히 틀리다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또는 불가능한 분야나 주제에 관해서는 수사학이 꼭 사기술이나 아침의 기술이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 『파이드로스』로 돌아가 다른 부분에 주목해 보자. 파이드로스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지식’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의견’의 구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가능하고 설득이 문제가 되는 수사학적인 사안을 세 가지로 열거했다. 그것은 바로 ‘정의(Dikaion)’, ‘좋은(Agathon)’, ‘아름다움(Kalon)’이다(259e-260a). 소크라테스는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도 누구나 수궁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파이드로스는 설득력을 보장하는 것은 진실이나 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 결정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견지하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파이드로스가 대중들의 의견이 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는 대중들의 잘못된 정보, 지식, 생각, 즉 진실이 아닌 거짓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설득을 위해서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주장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드로스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단지 ‘정의/부정의’, ‘좋은/나쁨’, ‘아름다움/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수궁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면,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있지도 않은 진실에 집착하는 것은 헛수고이며,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정 사안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 다수의 대중을 설득하여 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주제는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두 사람 사이의 쟁점도 결국은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다. “아테네인들이 나를 석방해 주지 않았는데도 내(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48b)를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한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크리톤의 제안이 정의로운 것으로 드러나면 탈옥을 시도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논쟁의 궁극적인 지점에는 ‘잘 산다(eu zēn)’는 것

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과 같다(48b). 정의로운 것은 좋고, 유익하며, 그리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적어도 『크리톤』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수사학적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를 지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다려야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을 법정과 의회, (장례식이나 개선식과 같은) 예식의 틀로 구분하고, 각 연설의 장르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플라톤이 제시한 세 가지 주제와 연결시킨다. ‘정의/부정의’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소하고 변호하며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익/손해’라는 의미에서 ‘ 좋음/나쁨’은 ‘도시국가(polis)’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는 의회에서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 권유와 만류의 내용을 좌우한다. 반면 누군가의 장점을 드러내 칭송하고 그 칭송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해야만 하는 예식에서는 ‘아름다움(멋짐)과 부끄러움(수치스러움)’이 부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형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우선시 되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수사학적인 맥락 안에서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수사학』 1358a36-1359a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세 가지 수사학적 주제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하고, 이런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며, 완전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따라 개연성만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난립할 수 있다. 예컨대 ‘크리톤의 집에 핀 장미는 빨강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빨간 장미가 노란 장미보다 아름답다’라는 식의 주장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그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미꽃이 도토리보다 유익하다’라든가, ‘들판의 장미꽃을 꺾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식의 주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논쟁이 지속될 때, 이를 잠재우는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청중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채택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른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민주정을 발명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확립된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청중을 설득하는 말솜씨, 연설가의 기술, 즉 수사학이다. 크리톤이 다수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수사학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V. 설득을 위한 소크라테스의 원칙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움과 좋음과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마치 장미꽃의 색깔에 대한 의견 대립을 판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세. 이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주제들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할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다. 이런 주제들에 관해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다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존중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의견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좋은 의견은 현명한 사람(Phronimos)들이 제시하지만, 나쁜 의견은 어리석은 사람(Aphronos)들이 내놓는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그에 따르면, 마치 몸에 관하여 체육교사나 의사가 그렇듯이 특정 주제나 분야에 관한 믿고 의지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반면,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못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단 한 명일지라도 의사나 체육교사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들의 의견

대신 다수의 의견에 신경을 써야 하나? 이런 경우라면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일지라도 의사나 체육교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가?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부끄러움,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이 갈리는 판단의 문제에서도 과연 체육교사나 의사의 전문지식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하는가? 좋음과 정의, 아름다움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달리 정의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건강의 문제처럼 객관적으로 검증되듯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식으로 결판이 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는 물론 옛날에도 의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모든 의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혈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혈압이란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높고 낮음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평균혈압을 정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의사들도 있다. 이때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어떤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구하려는 자신의 노력은 정의롭다고 말한다(45a). “소크라테스, 나에게서는 자네가 하려는 일, 그러니까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Dokei).”(45c) “소크라테스, 이런 일들이 자네와 우리에게 나쁨(=좋지 않을)뿐더러 부끄러운(=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46a)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탈옥과 관련된 ‘정의로움(≠정의롭지 못함)’ 나아가 ‘ 좋음(≠나쁨)’과 ‘아름다움(≠부끄러움)’의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옳다고 ‘보이는 것’, 즉 자신의 ‘의견(Doxa)’을 제시했다. 그의 의견은 존중받을 만한 좋은 의견인가, 아니면 존중할 필요가 없는 나쁜 의견인가? 소크라테스는 크리톤과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자신의 탈옥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조국인 아테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며 결코 유익하지 않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한다(49a-b). 소크라테스의 의견은 존중받을 만한 좋은 의견인가, 아니면 나쁜 의견인가? 둘 중 누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좋은 의견인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탈옥이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순간, 목숨을 건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이 항상 지켜 온 원칙을 크리톤에게

제시한다. 그 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나는 일단 추론해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말 이외의 내게 속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설득되지 않는다.”(46b)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때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일 때에 언제나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한 마디로 ‘설득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Logos)’과 ‘추론(Logizesthai)’이라는 단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어떤 명령이나 권유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예컨대 ‘다수가 힘으로(Pollōn dunamis)’ 몰아붙이려고 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듯이 투옥과 사형과 재산몰수로 협박을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보면서 가장 좋은 말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설득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겠다는 신념이다. 그가 크리톤에게 “왜 자네는 다수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가?”라고 했을 때의 결기 그대로다.

소크라테스의 원칙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Beltistos)’인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말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 좋음(Agathon)’임을 알려준다. 만약 좋은 말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좋다’는 것, 게다가 ‘가장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은 다시 앞서 논의되었던 세 가지 기준, 즉 ‘ 좋음/나쁨’, ‘정의로움/정의롭지 못함’, ‘아름다움/부끄러움’의 문제로 돌아간다. 플라톤이 『크리톤』에서 말하는 ‘ 좋음’은 인간의 삶을 영혼에서나 몸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게끔(Biōton)’ 하는 것으로서(47e) 다른 두 가지 수사학적 판단 기준인 ‘정의로움’과 ‘아름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48b).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특정한 말이 다른 말들에 비해 더 좋다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탈옥하는 것은 정의롭고 탈옥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크리톤의 말과 ‘탈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소크라테스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둘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어떤 것인가? 플라톤의 구분에 따르면, 단순히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지 말고, ‘진리’와 그것에 대한 ‘앎’을 따라야 한다. 크리톤과 소크라테스, 둘 중에 누가 정의에 대한 참된 앎을 가진 것일까?

그러나 여기서 논의는 ‘정의에 대한 앎’의 문제로 심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왜냐하면 『크리톤』의 소크라테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Phaiētai)’”이라는 말을 썼고, 그것에 기반하여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남’을 표현한 동사는 플라톤이 자신의 구분에서 실재와 대립되는 ‘현상(Phainomenon)’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던 동사이며, 따라서 ‘의견(Doxa)’을 파생시키는 동사 ‘보인다(Dokein)’와 뜻이 통한다. 이로써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논의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진리/현상’, ‘지식/의견’의 대립에서 진리와 지식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의견에 따라 내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문맥에서의 ‘나타남’은 어느 현상과는 달리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말을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추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 말은 ‘감각에 의존해서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가장 좋은지가 나타나며, 진실과 진리에 더 가까운 말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성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말을 할 경우에 진실과 진리에 더 가까운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 보이는 바, 즉 그들이 갖는 판단과 의견은 믿을 만한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말’을 선택할 것이며, 그 선택은 ‘진리’와 ‘지식’에 부합하며 ‘현상’과 ‘의견’을 물리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말을 선택할 것이며, 현명한 사람(들)의 존중받을 만한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은 논리적으로 따져 가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말’을 선택하는 원칙에 합의한 후, 논의를 진행시킨다. 이 논의의 원칙은 설득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 글은 바로 이 설득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다. 대신 공정관대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사태의 실상과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견이 존중할 만한 좋은 의견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가장 논쟁이 치열한 주제는 인간의 언행과 관련해서 ‘정의’와 ‘아름다움’, ‘좋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참된 앎을 가진 사람이 내놓은 의견이야말로 존중하고 선택하며 따라야 할 의견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에 설득될 때 적용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크리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부당한 판결로 사형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탈옥을 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다. (1)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 보복의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남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해를 입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부당하게 해를 입더라도 보복으로 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3) 내가 다른 사람과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면, 나는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내가 합의한 것을 임의로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합의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결국 합의를 깨는 것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따라서 합의한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합의의 상대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논리에 자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한다. ‘나의 탈옥은 결국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정의로운 것’이라고 세워진 법률을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률에 의존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탈옥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법률이 마치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을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당신이 아주 부끄럽게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고 보복으로 해를 입히고, 당신 자신이 우리와 맺은 합의와 계약을 어기며, 전혀 해를 주어서는 안 될 이들에게, 즉 당신 자신과 친구들과 조국과 우리에게 해를 주고서 여기서 나간다면, 우리는 당신이 살아 있을 땐 당신에게 화를 낼 것이고, 저승에서는 우리의 형제인 하데스의 법률이 당신을 받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한 우리마저 파멸시키려 한 것을 알고서 말이요.”(54c-d) 그리고 크리톤은 “소크라테스, 나는 할 말이 없네.”(54e)라고 소크라테스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은 크리톤처럼 소크라테스의 의견을 존중할 만한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를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의로움’과 ‘좋은’과 ‘아름다움’이 진정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짓을 당할 경우에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즉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주는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부당한 판결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부당한 법의 집행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이 힘을 발휘하지만 그 힘이 어리석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발휘될 때, 건전하고 현명한 소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횡포와 폭력이 되는데, 이를 방관한다면 민주주의는 위험한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순순히 사약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테네의 파멸을 방지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기원전 4세기를 맞이한 아테네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마침내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저자로서 훌륭한 시민과 국가의 청사진을 철학적으로 그렸던 그는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아테네로 하여금 또 다시 철학자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사형집행을 피해 아테네를 떠났던 것이다. 그는 현명한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일까? 그는 소크라테스만큼 논리적인 추론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정의로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부당한 법의 집행을 피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은 아니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으므로 그의 선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해도 좋을까?